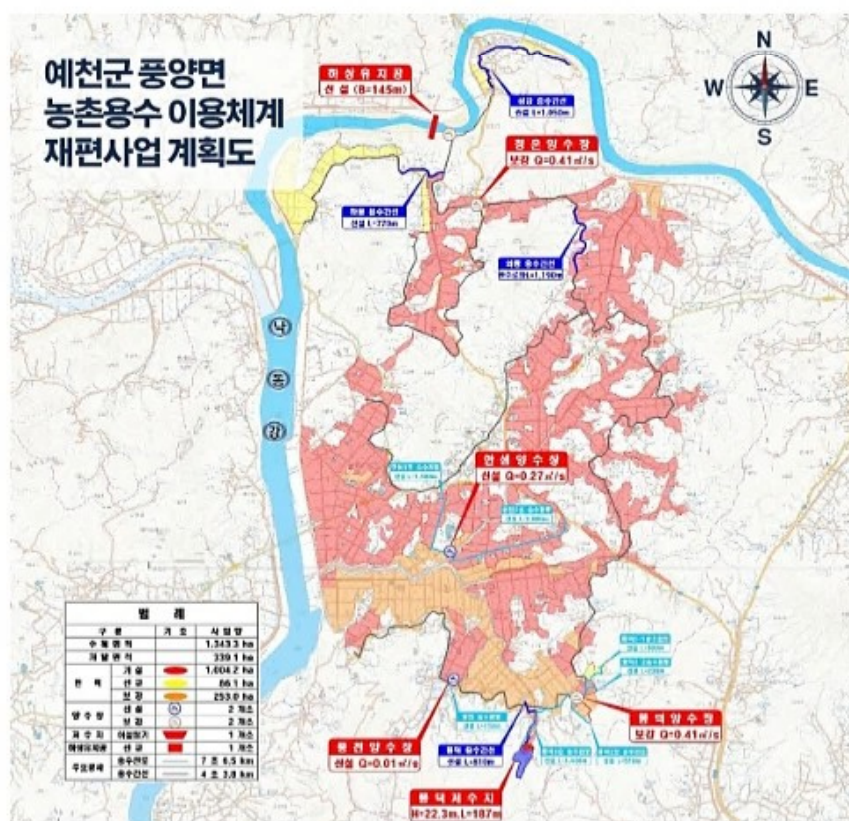


예천군 풍양면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국비 437억원 확보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공급 기반 구축... 통합 물관리 체계 마련 기대

김성재 기자

2026-05-05 15:02:33



예천군 풍양면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국비 437억원 확보 (예천군 제공)

[news25] 예천군은 풍양면 일원에서 추진되는 '농촌우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촌우수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총 43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건의해 선정된 4개 신규 지구 중 하나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건의해 선정된 4개 신규 지구 중 하나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사업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가 맡아 추진하며 예천군은 국비 확보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 등 분산된 수리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효율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풍양면 일원에 하상유지공 1개소, 저수지 이설쌓기 1개소, 양수장 4개소, 송수관로 7조 6.5km, 용수간선 4조 3.8km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농업용수 시설 개선과 수자원 활용 효율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풍양 양수장과 용수로는 1979년 준공 이후 장기간 사용되며 기능 저하가 발생했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용수 손실률이 높은 데다, 4대강 사업 이후 하상수위 저하로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단일 수원공 체계로 운영되던 구조로 인해 급수구역 말단 지역의 상시적인 물 부족 문제를 초래해 매년 반복적인 피해로 이어져 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내 수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수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2019년 자원조사를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025년 기본계획이 완료됐으며 2026년 실시 설계에 착수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은 농업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